

보도자료

2010년 2월 10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최성호 과장(☎750-2150)
방송통신진흥정책과 최정호 사무관(☎750-2152) jeong@kcc.go.kr

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

- 방통위, 문화부간 업무협력 합의 -

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2012년까지 2,0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제작, 송출 등의 종합 지원시설인 “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”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합의하였다.

작년 9월부터 방통위와 문화부는 범국가적인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차원에서 본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공동 추진기로 기본방향을 정하고, 세부적인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.

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▲소요재원 확보 방법 ▲사업 추진체계 ▲시설의 소유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이다.

이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양 산하기관(한국전파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)에서 파견 또는 추천받아 건축, 방송장비 등에 관한 전문가 위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·운영하게 된다.

방송통신콘텐츠에 대한 중요도가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콘텐츠의 가치사슬 전반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양부처가 역량과 의지를 모은 것은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2013년 디지털방송시대의 개막에 맞춰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이 고화질과 3D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시청자는 다양하고 품격 높은 방송통신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※ 붙임 :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(요약) 1부. 끝.

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(요약)

□ 사업 개요

- 방송콘텐츠의 기획, 제작, 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(스튜디오, 편집실, 업무시설 등) 구축

< 일반 현황 >

- 조성부지 : 한류월드 (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)
- 조성규모 : 부지 10,702㎡, 연면적 55,952㎡, 지상 18층 지하 4층
- 주요시설 : 스튜디오 (대형 1, 중형 1, 소형 4), 중계차 1, 편집실 16
- 총사업비 : 3년간 1,991억원(상가 등 일부 시설 분양 적용시)
- '10년 정부예산안 : 98.5억원(방통위 78.5억원, 문화부 20억원)
- 이용대상 : 우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, 독립제작사, 양방향콘텐츠사업자

□ 추진 경과

- '07. 07월, '한미FTA 서비스분야 보완책'의 일환으로 지원센터 건립 제시
- '09. 08월,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인정(경제성분석 1.03, 종합평가 0.529)
- '09. 11월, 지원센터 건립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
- '09. 12월, '10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(문방위 등) 심사
- '09. 12월,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

□ 추진 내용

- HD, 3D, 양방향 등 미래 수요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, 송출시설 구축
 - ※ 스튜디오, 편집실, 중계차, 송출실, 콘텐츠저장실, 교육장, 임대사무실 등
- 건축 기능의 효율성 감안한 건물·시설 배치(지상 18층, 지하 4층 예정)
 - ※ 제작시설은 저층부, 업무시설은 고층부 배치, 편의시설은 지하층 배치
- 문화부와 공동추진, 사업추진단 구성·운영, 일괄입찰(턴키)방식 적용
- '10년(설계, 토지매입) → '11~'12년(본공사) → 활용('13년~)

□ 비전 및 목표



□ 조감도(안)

